

社說

구호뿐인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능률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집약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거의 행정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 사회에서 점차 지방분권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직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마치 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년 동안 330여건을 제안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는 제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가 제안제도를 모집해 놓고 행정에 반영한 사례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천시 제안제도 규칙에 열거된 사항도 없고, 공무원들은 독창성이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이나 형식을 행정현실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제안제도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 청원이나 경기도와 중앙관료부서에 의견제출 등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 습관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인사권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선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제도와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참신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새인물 / 제6대 이보형 포천소방서장

“지역방재와 대민봉사에 최선”



신임 이보형 서장(52·사진)이 지난 16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6대 포천소방서장에 취임했다.

업하고 1979년 1월 소방서에 입문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 소방국장(상환실), 포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방호예방과장, 제2소방재난부 설치준비 기획단장, 제2소방재난부 소방행정기획과장 등 주요부서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신임 이보형 소방서장은 “우리 소방은 항상 시민의 곁에 있어야 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된 소방인으로서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고객만족이라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력이 적어 업무량이 과중한 것이 현실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세로 지역방재와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드릴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 대민봉사를 받치고, 어떠한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장능력을 함양, 소방가족은 협력과 화합이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포천시, 200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결실



포천시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조성된 영종면 양문지방산업단지 내 근로자 쉼터. 인근 42개 업체 1천여 명의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다.



포천이 훼손된 차랑소통에 지장을 주었던 신북면 신평리 신평염색공단 진입로(사진 위쪽)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말끔하게 단장됐다. (사진 아래쪽)

포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신평염색공단 및 마명공단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양문지방산업단지 쉼터 조성, 신평지방공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등 모두 4건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도비 2억1천190만원과 시비 8천10만원 등 총2억9천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번 사업을 통해 모두 176개 업체 3천100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게 됐다.

먼저 신북면 신평리 신평염색공단 및 내촌면 마명2리 마명공단 진입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서, 공단을 오가는 차량들의 소음과 제품 수송이 한층 원활해졌고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증대됐다.

영종면 양문지방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근로자 쉼터에는 파고라 1동, 사각정자 2동, 체육시설 10종이 들어서 있는데 생활 편의 시설을 개선, 생산성 및 구인여건 향상을 통해 모두 42개 업체 1,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신북면 신평지방공업단지 진입로는 아스콘 상태가 불량하고 상수도 관로 매설로 표면이 훼손돼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재포장 공사를 통해 길이 1.5km, 폭 10m의 도로가 말끔하게 정비됐다.

포천시는 2007년에도 양문공단단지 하천북계주차장 및 수중보 설치, 소흘읍 고교리 47-2번지 도로를 위해 도비 9천 5백만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10곳의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하고 도비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와 경기도를 구현하는 데 이 같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스리랑카 콜롬보시와 우호협력관계

포천시, 청소년 및 문화교류 추진 계획

박윤국 포천시장은 일행이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 시를 방문해 우호도시체결의향서를 맺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시장 일행은 이번 방문에서 스리랑카 서부지역 장관이기도 한 레기날드 쿠레이 콜롬보시장을 비롯해 노동부장관과 교통부장관 등 각료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양 도시간 상호이익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리랑카 현지에서는 이 내용이 정규 뉴스시간에 보도되는 등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포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회담에서 스리랑카 측은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쓰나미 피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포천시는 청소년 및 문화교류방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포천시는 앞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교육 및 상호 홈스테이를 통해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방문 때 노트북 컴퓨터 3대와 아동용 침바지 200벌을 제공했다. 남한면적의 2/3 크기인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경관과 순수하고 친절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현실은 우리나라의 6~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박윤국 포천시장은(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레기날드 쿠레이 콜롬보시장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콜롬보시청 회의실에서 양 도시간 우호도시체결 의행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포천시 여성대학 수강생

잇따른受賞 결실

지역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대학의 한 수강생이 최근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잇따른 수상소식을 전 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포천시 여성대학에서

사군자반을 수강해 오고 있는 정명희(45·신북면 신평리) 씨는 최근 의정부시에 열린 제4회 흥선문화제 기념 제1회 흥선사군자 백일장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가평군에 주최한 제7회 한석봉 전국 서예회화대회에서도 특선에 올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7회 한석봉 전국 서예회화대회 등에서 일상한 정명희 씨 (사진 오른쪽)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paper (www.ipcs21.com)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pricing.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paper, highlighting its status as the highest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Includes a list of publication dates from 2000 to 2006.